

규제개혁위, 지역 중소기업 보호 조례 폐지 요구

지방 활성화 ‘찬물’ 산업기반 무너진다

도내 중소기업·건설사 직격탄
도 “조례 유지해야” 반대 입장

정부가 내 고장 제품 팔아주기 및 지역 발주 공사물량의 도내 업체 참여 등을 규제개혁 대상으로 정해 폐지를 요구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도와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은 최근 규제개혁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강원도 등의 지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를 오는 6월까지 전면 개선하거나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 우대 조례를 규제 기요틴(단두대)으로 규정하고 이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역외지역을 차별하는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아직까지 도에 공식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도를 비롯 18개 시·군 모두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일부 지자체 40% 이상~49% 이하)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

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장비·인력 사용 등을 권장하는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에 포함된 것이나 다름 없다. 실제 관련 조례가 폐지되면 도내 2,000여개 건설업체 등을 포함한 지역 중소기업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물량 및 물품구매사업에 참여율이 줄어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도내 중소기업은 내 고장 제품 팔아주기 사업으로 1조9,350억여원의 실적을 올렸다. 또 올해 도와 18개 시·군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물량은 2조5,344억원으로 조례가 유지되면 도내 건설업체가 최소 1조2,000억여원을 수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업체 우대 조례는 강제조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지역 건설업계도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 최소한의 제도마저 규제로 정한 정부의 시각을 진짜 바꿔야 할 규제라며 성토했고 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2면에서 계속

도 산업기반 붕괴 우려

1면에서 계속

특히 도내 업체는 대부분 공공공사 발주물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면 지역 건설산업 기반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시장 침체 속에서도 지역내총생산의 10%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힘이 크다”며 “지역업체 우대 조례가 없었으면 현재 도에서 진행 중인 각종 SOC사업 및 올림픽 관련 공사에 도내 업체들은 컨소시엄으로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규제개혁 추진은 편협한 시각에 불과하며 실제 조례가 폐지되면 건설시장에 대형업체 또는 대기업만 남고 지역 중소기업들은 전부 도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올해 공사·용역 발주에 12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공 부문 최대 규모인 12조원가량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 LH는 올해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민간-공공 공동개발, 대행개발 등 다양한 개발 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덤핑 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했던 종합심사낙찰제 10개 공사(6,000억원)가 시행될 예정이다. 하위윤기자

【 2015.03.04(수) 건설경제 】

‘큰손’ LH, 대형공사 29건 등을 12兆 물량 집행

〈설계금액 1000억원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공부문에서 최대 규모인 12조원에 달하는 일감을 쏟아낸다.

특히 설계금액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29건을 선보여 최근 기술형입찰 감소로 인한 중대형 건설업체의 일감 부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올해 총 12조원 규모의 건설공사와 용역 763건을 발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집행 실적(9조 7000억원)에 비해 2조원 넘게 증

가한 것으로, 어려운 재무 및 경영 여건 속에서도 국내 최대 건설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건설 경기 활성화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집행 규모를 늘렸다.

LH는 올해 3조 2000억원 규모의 토지사업을 발주해 75개 지구(24개 공구)의 27㎢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8조 8000억원 규모의 주택사업을 집행해 47개 지구(73개 블록)에 6만 6000가구를 착공하기로 했다.

LH가 올해 선보일 건설공사는

11조 8000억원에 554건이고, 용역은 2000억원에 209건이다.

건설공사는 건축공사가 7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토목공사 2조원, 전기·통신·기계 1조 7000억원, 조경공사 6000억원, 환경시설 2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올해 최대어인 시흥은계 S2 아파트 건설공사(2330억원)를 비롯해 설계금액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29건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채희찬기자chc@▶6면에 계속

LH, 올 대형개발사업 스타트

이달말 1.4조 규모 대상 선정... 서한, 행정도시 2-1 생활권 조경공사 따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본격적인 대형개발사업 집행에 나섰다.

LH는 이달 말 올해 대형개발 방식으로 집행할 1조 4000억원 규모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3일 LH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조경공사(246억원 이하 설계금액)에 대한 입찰을 마감하고 서한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했다.

이는 LH가 올 들어 처음 대형개발사업 방식으로 집행한 것으로, 총 8개사가 참여해 지난해 10대의 정주농담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서한은 도급공사비의 50%를 현물로 받는 1순위에 설계금액 대비 66.93%인 164억6500만원으로 최저가

격을 투찰해 올해 대형개발사업 1호를 거머쥐었다. 이로 인해 서한은 시공권과 현물로 받은 공급가격 106억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확보했다.

서한은 지난해 LH가 대형개발사업으로 집행한 부산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개발사업 조경공사 1공구와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조경공사(4-3공구)를 수주한 바 있다.

이번 입찰에는 파크종합건설(68.99% 이하 투찰률), 화산건설(75.56%), 디앤씨건설(76.8%), 양우건설(79.82%), 남해종합개발(81.82%), 요진건설산업(82.26%), 테일(82.8%)이 참여한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였다.

서한 관계자는 “중견업체는 최저가낙찰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데 대거 중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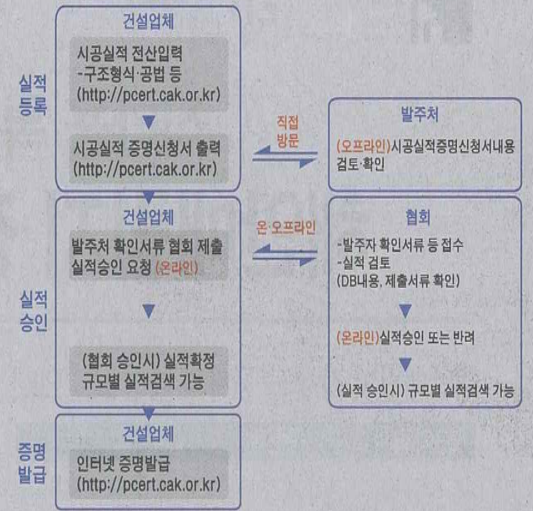
심사 낙찰제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기발점이 없는 현상”이라며 “이번 입찰은 올해 첫 번째 대형개발사업 점이 겹쳐 저가 투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와 함께 입찰공고를 낸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조경공사(126억원)와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공사(245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 3-3 및 4-1(일부)생활권 조경공사(217억원)도 오는 6일까지 잇따라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올해 총 1조 400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이 같은 대형개발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으로, 이달 말 적용 대상을 선정한다.

LH는 지난해 1조 3000억원 규모의 28건을 대형개발 방식으로 집행한 바 있다. 채희찬기자 chc@

종합심사제 시공실적 등록 발급 업무흐름도



건설, 중심제 시공실적증명 발급시스템 운영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최저가 낙찰제 대안으로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공실적증명 발급시스템(http://pcert.cak.or.kr)을 구축,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3일까지 시범 운영한 후 바로 16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종합심사제의 시공실적과 공종구분별 실적 증명 발급받을 수 있다.

시스템에 한 번 등록된 실적은 발주기관이 없어져도 증명서가 분실돼도 시스템에 기록된 실적은 변경 및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업체별 실적DB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시스템 등록비는 없으며 발급비는 중심제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 말까지 무료다. (문의: 협회 정보관리실 02-3485-8333-6)

김정석기자 jskim@

1면서 계속=‘큰손’ LH, 대형공사 29건 등을 12兆 물량 집행

입찰방법별로는 최저가낙찰제 대상이 전체의 56%인 6조 7000억원(56건)이고, 적격심사는 2조 6000억원(336건), 대형개발은 1조 4000억원(28건), 기타 4000억원(120건), 기술형입찰 1000억원(2건) 등이다. 최저가낙찰제는 아파트 건설공사가 6조 3000억원이고, 조성공사가 4000억원이다.

올해 기술형입찰은 모두 턱기(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오는 5월 국군 중증의상센터(800억원)와 오는 7월 포함불루버리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건설공사(208억원)를 발주하기로 했다.

LH는 올해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민간·공공 공동개발과 대형개발 등 다양한 방식을 추진하고, 정부가 덤핑 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작년보다 시범사업을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도 6000억원 규모에 10건을 집행할 계획이다. (본지 2월25일자 6면 참조)

분기별로는 1분기에 3조 8000억원, 2분기에 1조 9000억원 등 올해 물량의 48%인 5조 7000억원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3분기에 3조원, 4분기에 3조 3000억원을 발주할 예정이다.

2015 LH 주요 대형공사 발주 계획

| 구분 | 건수 | 발주 시기(월) | 발주 금액(원) |
|-------------------------------|----|----------|-----------------|
| 시흥은계 S2 아파트 건설공사 | 9 | 1 | 232,969,806,000 |
| 부천목길 S1 아파트 건설공사 | 1 | 1 | 196,318,693,000 |
| 의정부민락2 A6 아파트 건설공사 | 1 | 1 | 186,506,735,000 |
| 수원호매실 B3BL 아파트 건설공사 | 3 | 1 | 185,918,780,000 |
| 고양삼송 A12 아파트 건설공사 | 12 | 1 | 185,918,200,000 |
| 파주운정 A20BL 아파트 건설공사 | 1 | 1 | 177,303,690,000 |
| 인천서창2 B2BL 아파트 건설공사 | 3 | 1 | 175,907,769,000 |
| 부산명지 B1BL 아파트 건설공사 | 9 | 1 | 172,760,912,000 |
| 행정중심복합도시 미호천2교와 복측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 10 | 1 | 160,000,000,000 |
| 행정중심복합도시 2-1M3 아파트 건설공사 | 9 | 1 | 159,174,582,000 |
| 강릉유정 A2BL 아파트 건설공사 | 2 | 1 | 154,169,573,000 |
| 시흥은계 S1BL 아파트 건설공사 | 4 | 1 | 146,589,807,000 |
| 수원호매실 B2BL 아파트 건설공사 | 1 | 1 | 142,871,432,000 |
| 하남미사 A4 아파트 건설공사 | 3 | 1 | 142,441,944,000 |
| 의정부민락2 B9 아파트 건설공사 | 9 | 1 | 141,869,888,000 |
| 이산원정2 A12 아파트 건설공사 | 12 | 1 | 141,297,832,000 |
| 안성안양 B4BL 아파트 건설공사 | 4 | 1 | 137,722,911,000 |
| 강릉유정 B2BL 아파트 건설공사 | 2 | 1 | 132,002,333,000 |
| 대구테크노 A-10 아파트 건설공사 | 1 | 1 | 131,858,908,000 |
| 대구구호 B1BL 아파트 건설공사 | 3 | 1 | 129,571,088,000 |
| 화성동탄2 A69BL 아파트 건설공사 | 1 | 1 | 126,138,741,000 |
| 화성동탄2 A50BL 아파트 건설공사 | 1 | 1 | 125,280,655,000 |
|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건설공사 2공구 | 10 | 1 | 125,037,000,000 |
| 대구신서혁신 A7 아파트 건설공사 | 9 | 1 | 117,557,508,000 |
| 인천가정 8 아파트 건설공사 | 9 | 1 | 113,410,102,000 |
| 하남미사 C3BL 행복주택 건설공사 | 9 | 1 | 102,689,956,000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조성공사 | 10 | 1 | 102,300,000,000 |
| 인천가정 9BL 아파트 건설공사 | 4 | 1 | 102,112,314,000 |
| 전주만성 A1BL 아파트 건설공사 | 3 | 1 | 101,683,271,000 |

LH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발주를 통해 수주 기근에 시달리는 건설업체의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며 “국토개발 및

서민 주거안정의 중추기관으로서 올해도 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찬기자